



1 행주산성 해맞이  
2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에 재현한 영화 '기생충' 주인공의 동네 모습



## 역사와 테마 품은 고양시 매력을 더한다

고양시에 있는 행주산성 역사공원이 한국관광공사와 7개 지역관광공사가 함께 선정한 '언택트 관광지 100선'에 뽑혔다. 언택트 관광지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다른 여행객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관광지를 말한다.

언택트 관광지 100선은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 개별 여행 및 가족 단위 테마 관광지, 야외 관광지, 자체 입장객 수 제한을 통해 거리두기 여행을 실천하는 관광지 등의 기준을 통해 선정한다.

행주산성 역사공원은 한강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친수 공간(빨랫돌 머리), 북한 무장공비 침투 방지 철책이 시작됐던 지점인 군 초소 포토존 등 이색적인 관광 콘텐츠가 풍부하다. 특히 노을이 아름다워 한강을 붉게 수놓은 석양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언택트 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행주산성 역사공원과 8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야간에도 개방되는 행주산성을 함께 방문하면 특별한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또 아쿠아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영화 '기생충'의 촬영 전시관을 9월 말에 선보인다. 기생충은 올해 아카데미 4개 부문을 수상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기생충은 고양시에 있는 이 스튜디오에 기택(송강호)의 반지하 집과 골목을 정교하게 만들어 폭우에 동네가 물에 잠기는 장면 등을 촬영했다. 명량, 해운대, 국제시장, 광해 등의 영화 수중 특수 촬영도 이곳



이재준 고양시장

에서 진행했다.

고양시는 기생충 제작사와 함께 키오스크 포토존과 영상존, 포토월, 소품존, 출연 배우의 핸드프린팅, 영화 촬영 때 사용한 파도 조성법을 재현한 모형 등을 전시하는 전시관(80㎡)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양시는 전시관 주변 1km 가로수 구간에 쉼터를 설치하고,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영화 포스터 등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영상문화 단지를 조성 중이다. 단지는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24만6천㎡에 총 1천500억원을 들여 건립되며, 아쿠아 스튜디오를 비롯해 야외 세트 제작소, 남북영상 콘텐츠센터, 영상 연구·개발 기업 등이 들어선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단지가 완공되면 영화를 전공하는 학생은 물론, 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의 체험·전시 공간으로 변모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스토리가 있는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 사랑과 정의로 평화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

코로나,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외출 시 마스크 착용 · 비누로 30초 간 손 씻기 · 사회적 거리두기

